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5. 17.(화) 06:00 ~ 23:00
- 상담건수¹⁾: 889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3명)

-프로그램명 : 월화드라마 「붉은 단심」

-방송일시 : 2022. 5. 16.(월) 2TV (21:30-22:40)

이태(이준 분)가 좌의정 박계원(장혁 분)의 질녀가 된 유정(강한나 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두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에 시청자들도 덩달아 먹먹함을 느꼈다. 이태와 유정이 각자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될 텐데,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하다.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와 배우들의 호연을 기대하겠다.

○ 재방송 요청(3명)

-프로그램명 : 「부부의 날 기획 가요무대」

-방송일시 : 2022. 5. 16.(월) 1TV (22:00-22:55)

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이날 방송은 ‘천생연분’이란 주제로 남녀 간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는 인생을 노래한 곡들을 들려주었다. 본인도 배우자와 함께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깊은 울림과 감동을 받았다. 방송을 한 번 더 시청할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뮤직뱅크’ 외 7건.
 - ‘뮤직뱅크’ 관련(동의수 56) : 1등의 방송횟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889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480	21	-	-	388	889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34	283	15	-	-	157	889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21	768	-	889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680	10	93	106	889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의 날 기획 가요무대」 - 재방송 요청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방송 호평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화드라마 「붉은 단심」 - 방송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진행자 제언 ○ 「김혜영과 함께」 - 방송 호평 ○ 「출발 FM과 함께」 - 선곡 제언 ○ 「김미숙의 가정음악」 - 선곡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도토리묵」 연락처 문의 60건 ○ 「2TV 생생정보」 - 「무한리필 고기」 연락처 문의 41건 ○ 「부부의 날 기획 가요무대」 - 「방청」 문의 23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생방송 전화 참여」 문의 18건 ○ 「열린음악회」 - 「방청」 문의 17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9건 ○ 「수신기술」 문의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45건 ○ 「수신료」 문의 24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3건 ○ 「전화교환」 문의 9건 ○ 「주차」 문의 1건 외 1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 문의사항 포함 106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재방송 요청	<p>○ 「부부의 날 기획 가요무대」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5. 16.(월) 1TV (22:00-22:55) - 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이날 방송은 ‘천생연분’이란 주제로 남녀 간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는 인생을 노래한 곡들을 들려주었다. 본인도 배우자와 함께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깊은 울림과 감동을 받았다. 방송을 한 번 더 시청할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시사·교양]	
방송 호평	<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백세 심장 건강법’(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5. 17.(화) 1TV (10:00-11:00) - 나이가 들어 심장이 노화되면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날 연세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 서울대 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등 전문의들이 출연해 백세까지 팔팔한 심장 건강 지키는 법을 알려주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인 심장 건강을 다뤄주어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드라마]	
방송 호평	<p>○ 월화드라마 「붉은 단심」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5. 16.(월) 2TV (21:30-22:40) - 이태(이준 분)가 좌의정 박계원(장혁 분)의 질녀가 된 유정(강한나 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두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에 시청자들도 덩달아 먹먹함을 느꼈다. 이태와 유정이 각자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될 텐데,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하다.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와 배우들의 호연을 기대하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진행자 제언	<p>○ 「최경영의 최강시사」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R (월-금) (07:20-08:57) -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이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한 인터뷰부터, 그날그날의 시사 이슈들을 골고루 다뤄주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가 종종 본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호평	<p>○ 「김혜영과 함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5. 17.(화) 2R (14:00-16:00) - 좋은 음악이 있고, 톡톡 튀면서도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연들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청취한다. 해당 방송이 편성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점심을 먹은 후 나른한 시간인데, 늘 흥겨운 방송으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하다. 계속해서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청취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선곡 제언	<p>○ 「출발 FM과 함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5. 17.(화) 1FM (07:00-09:00) - 매일 오전 출근길에 운전하며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한참 도로가 막힐 시간인데, 조용하고 서정적인 곡 위주의 선곡에 운전자들은 졸음이 밀려온다. 수많은 출근길 직장인들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경쾌한 곡들도 많이 선곡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선곡 제언	<p>○ 「김미숙의 가정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FM (월-금) (09:00-11:00) - 온종일 KBS 클래식FM 채널을 청취한다. 「김미숙의 가정음악」은 선곡이 풍성해서 특히 좋아한다. 그러나 러시아 음악가들의 곡을 선곡하는 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러시아에 유명한 음악가가 많기 때문이겠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음악계나 스포츠계에서 러시아가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아픔을 생각해 선곡에 주의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심**</p>